종교·복지 단신

장애인고용협 광주지부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광주지부는 오는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 동안 ‘2007 광주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CNC선반, 전자기기, 컴퓨터수리, 전산응용기계제도(CAD),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활용능력, 웹마스터, 가구제작 등 25개 분야의 종목에서 기능을 겨루게 된다.

참가 자격은 15세 이상(1992년 5월30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에 의한 장애를 지닌 자로, 국제 또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다른 직종은 참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오는 4월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529-3329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반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의결한 것에 대해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명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깔린 정부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인간 생명의 존업성을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간 생명 파괴와 복제인간 생산 우려가 있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결코 허용돼선 안되며 앞으로 배아연구의 일체 금지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운동 등을 펼쳐 나갈 것”을 주장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지역 교회 세계화 바람

“예배·찬송 모두 영어로 해요”

세계화 바람이 광주지역 교회에도 불고 있다. 영어권 원어민 강사등 외국인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광주에도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영어 예배를 시작한 곳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 동명교회. 지난 1997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20~30명이던 참석인원도 지금은 100여명으로 꾸준히 불어났다.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양주리(여·35) 간사는 “광주에도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영어 예배를 하게 됐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온 학원 또는 학교의 원어민 강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어 예배 참석자들은 예배를 마친 뒤 함께 식사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친교를 나눈다. 또 계절별로 야유회 등을 실시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영어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동명교회를 비롯한 월산동 벧엘교회, 화정동 중앙교회, 화정동 월광교회 등.〈표〉 대개 신자 수가 수 천명을 헤아리는 큰 교회들에서 실시하고 있다.

■ 영어예배 하는 교회

장소	시간	문의
동명교회	일요일 11시 30분	062-232-1757
벧엘교회	일요일 12시	062-367-1004
중앙교회	일요일 11시	062-717-9100
월광교회	일요일 11시 30분	062-375-0400

중앙교회 김주원(36) 목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보다 외로움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영어 예배를 통해 외국인 신자들의 영적 생활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나 학생 등 한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심지어 신자가 아닌데도 영어만을 목적으로 교회에 와 신자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광주 동명교회의 영어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영어 가사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광주 동명교회 제공〉

벧엘교회 윤복현(56·목포대 기계공학과 교수) 집사는 “서울의 경우 교포나 외국 생활을 했던 한국인 1.5세대들이 많아 더 활성화가 쉽지만 광주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순히 영어로 예배를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 예배의 진행은 한국의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나 목사 등이 진행한다. 월광교회 김인숙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예배와 함께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고, 나머지 한국 신자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동구 호남동 성당에서도 외국인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영어미사를 연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원각사 새 삼존불 봉안 기념 대법회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스님)가 대웅전에 새 삼존불을 봉안하고 기념 대법회를 개최한다.

원각사(주지 도제)는 지난해 6월 증축한 대웅전의 규모에 맞는 새 삼존불〈사진〉을 조성, 오는 5월20일 점안 법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5월2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구산 스님의 제자 7명을 초청해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초청대법회는 4월8일 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현웅 스님을 시작으로 전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 광주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현장 스님, 광주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서울 법련사 회주 현호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은 “대웅전에 새롭게 모신 부처님을 기념하기 위해 초청대법회를 준비했다”며 “이를 계기로 쇠락한 호남지역 불교가 중흥하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 제공〉

원각사는 지난 1914년 선암사 금봉기림 스님에 의해 창건된 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사격이 대부분 훼손됐으나 1984년 스님 및 신도들의 발원으로 다시 요사채 및 선방, 극락전 등을 건립했으며 지난해 6월 서울 조계사의 도움으로 40여평의 대웅전을 증축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윤빈호

십자가 나무

십자나무 혹은 십자가 꽃이라 불리는 산딸나무꽃(도그우드: Dogwood)은 예수님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산딸나무꽃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로 지정되자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산딸나무에게 ‘너의 꽃잎은 앞으로 십자가 모양을 할 것이며 한 가운데는 가시관 형상을 하고 꽃잎 끝은 나의 못 자국을 상징하는 상처를 지니고 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후 이 꽃을 사람들은 십자가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 꽃의 마음을 읽은 이혜인 수녀님은 ‘십자나무 꽃’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괴로운 당신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저 울기만 하였습니다.… 이젠 좀 쉬시라고 제가 대신 아파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 당신을 닮은 기도의 꽃을 피워 사람들에게 눈물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가톨릭의 전례력에 따르면 부활절(4월8일)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 신앙인들은 단식과 금육을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특히 성주간(4월1일~6일)은 사순시기의 마지막 주간으로써 예수님의 수난 사건을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성 금요일(4월6일)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미사 없이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사제는 십자가를 가린 천을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보여주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나무, 메마르고 거칠게 다듬어졌을 그리고 죄수들의 사형 장소인 골고타 돌 언덕에 아무렇게 세워졌을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냥 땅에 꽂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렀던 물과 피로 생명을 받아 세상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수난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아픔, 고통, 수난도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수난은 예수님 십자가의 수난에 시공을 초월하여 합치·승화돼 부활이라는 기쁨 아니 구원이라는 행복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나무는 구원나무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열매가 사시사철 열려있어 언제든지 내가 따 먹을 수 있는 구원나무가 바로 십자나무입니다.

〈천주교 곡성본당 주임신부〉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4月 2日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 강 료 : 210,000
모집인원:1단계 오전반 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화, 목)09:30~12:30(3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화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턴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이장과 군수(12세)
3관	그여자작사,그남자작곡(12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愛)(15세)
4관	300 (18세)
5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15세)
6관	블랙북(18세)
7관	넘버23(15세)/수(18세)
8관	이장과 군수(12세)
9관	뷰티풀 선데이(18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 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이장과 군수(15세)
2관	1번가의 기적(15세)
3관	쏜다(15세)
4관	행복을 찾아서(전체)
5관	수(18세)
6관	좋지아니한가(15세)
7관	300(전체)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행복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넘버23(15세)
2관	쏜다(15세)/브레이크업:이별후애(愛)(15세)
3관	이장과 군수(12세)
4관	이장과 군수(12세)
5관	수(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15세)
7관	300(18세)
8관	블랙북(18세)
9관	뷰티풀 선데이(18세)
10관	300(18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넘버23(15세)
2관	그여자작사, 그남자작곡(12세)
3관	이장과 군수(12세)
4관	뷰티풀 선데이(18세)
5관	300(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15세)
7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愛)(15세)/쏜다(15세)
8관	수(18세)
9관	블랙북(18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